

# 녹색평론

2002년 9·10월 통권 제66호

- 2 땅의 응호 ..... 김종철  
20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 ..... 송기숙  
39 민중의 자연 ..... 다카기 전자부로  
62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 더글러스 러미스  
89 도덕과 정치 ..... 김지하 / 최종덕

- 106 아프리카 외 1편 ..... 서 숙  
115 에너지 전환의 현장 ..... 이필렬  
134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철도 ..... 성동환  
144 녹색대학의 이념과 전망 ..... 장희익

## 생명복상

- 184 풀비린내에 대하여 ..... 나희덕  
186 기도할 줄 아는 활동가 ..... 김곰치

중 속에 살아있는 한사람의 운동가이며, 또한 그를 둘러싼 운동 역량들과 또 대중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나아가 원주라는 지역이 갖는 역사적·지리적·지정학적 특수성과 연관짓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주제고, 그 다음에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장 선생님과 근접되어 있던 분들과의 사상 생성 전개과정을 연결짓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되는 주제지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 선생님의 훌륭하고 높은 덕성이 가리워지고 그 작업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백범이나 몽양과 같은 방식으로 무위당을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지요. 영웅으로 다루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았고...

예를 하나 들게요. 봉산동 다리 건너에 있는 본댁에서 나서서 원주 시청 앞 찻집까지 가시는 데 보통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시간에서 보통 두시간 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소? 가시면서 이런 좌판, 저런 리어카, 바구니 장사 아주머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나그네에, 동네 순경까지 만나서 소소한 이야기들, 즉 아버지 잘 계시냐, 조카 결혼생활은 잘 하느냐, 요즘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 것 이지요. 그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가는 탁월한 삶의 운동정치가지요. 물론 현실 무대정치가 아니라. 그런 시각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나가면, 직접 겪지 않은 최 교수까지도 비로소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최종덕 예, 저 개인적으로 무위당 선생님을 생전에 뵈 적이 없지만, 그분과 인연이 닿았던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주에서 느낀 것은 무위당을 모셨던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 표피적인 갈등과 함께 아주 깊은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이해 못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위당 선생님의 글 중에서 특히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고3 학생으로서의 김영일(김지하)을 말한 부분인데요. 장 선생님이 당시 김영일을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든지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이었다는

## 도덕과 정치

김지하 시인에게서 듣는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

대담자 — 최종덕

최종덕 물질의 그늘 밑에서 생명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져만 가는 현대인에게 선생님의 생명사상이 어떻게 자리잡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가 혼탁해지고 겁테기와 알맹이가 뒤바뀌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우리 시대 생명사상의 큰 스승이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단편이 아니라, 그분의 사상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조명해주시는 자리를 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소중한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장일순 선생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김지하 장일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장일순 선생 개인을 영웅으로 숭배하여 그분을 역사에 부각시키는 기존의 상투적인 시각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분에 대한 대접도 아닐 거예요. 장 선생님은 민

최종덕 — 상지대 교수. 철학. 이 대담 기록은 원래 <무위당을 기리는 사람들> 소식지 제4호(2002년 5월)에 실렸던 것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 더과 정치 89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40년 가까이 된 과거의 일이지요. 그만큼 김 시인께서는 오래 전부터 장 선생님을 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넓은 시각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하 예, 그래요.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내 얘기로 충분치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장 선생님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여럿 만나세요. 그렇게 해야 장 선생님의 모습과 그때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우선 장 선생님 개인의 측면에서, 그분은 한마디로 도덕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조선시대 조광조가 지치주의(至治主義, 덕목과 인성 수양이라는 수기치인의 유교정신을 정치인의 덕목으로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 유교 안에서 '지치'의 지극한 도덕을 실현하려다가 실현시키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이분도 그것을 실현 못하고 애쓰다 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초점이 맞습니다. 단편적으로 도인이니, 교육가니, 이렇게 자꾸 한 면만 보아서는 안돼요. 교육가, 그 다음에 도인, 정치가 그리고 그 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도덕정치가라는 그분의 구심점이 나타나지요.

원주는 나에게 삶의 기착지입니다. 내 고향은 목포이고 14살 중학교 때 원주로 와 살다가 나중엔 서울로 옮겼으니까. 그러나 장 선생님의 경우는 선대부터 쭉 원주에 사셨던 분이고, 유생이었죠. 유학적인 수양으로 몸을 다지신 분이고, 마치 금강석처럼 부서지지 않는 도덕을 실현한 분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유학과의 관계를 밝혀야 그분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쓰라린 일들이 생겨도 절대 혼들리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도덕을 체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하나는 철저한 카톨릭 정신을 실현하신 분이죠. 세번째가 해월 정신이 드러난 시기입니다. 드러났다기보다는 나중에 해월과 당신 생각을 일치시킨 것이죠. 그전에 간디와 비노바 바베의 영향도 컸어요. 이처럼 어떤 도덕적인 정신사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또 철저히 운동정치가입니다. 이걸 내가 강조

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거요. 철저한 정치가가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의 삶의 과정을 통찰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일부분만 보고 이 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그분의 전체가 잘 안 보이고, 원주에서 시작된 지역운동의 실체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보려는 큰 노력을 우리가 계을리 한 것 같습니다.

### 지역자치와 생명운동

**최종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실체를 보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물의 사상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증주의적인 접근에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실증주의적인 접근이나 정서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전체를 보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김 선생님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원주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하** 그래요. 내가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여 그동안 잘은 못했지만, 원주 사는 분들을 비롯한 많은 형제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많다는 건 알아요. 장 선생님 때처럼 무엇인가 새롭고 신선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내가 무엇인가 일조를 했으면 하고 모두들 바라죠. 그러나 제 덕이 장 선생님에 못 미칠 뿐더러,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몸까지 나빠져서,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를 반전하여 생명운동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장 선생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과제를 안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원주라는 도시의 특성입니다. 『태리지』에 보면 원주라는 도시는 항상 서울을 넘보고 반역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장 선생님은 원주라는 도시하고 비상하게 맞아떨어지는 양반입니다. 그분이 몽양 제자로서 몽양의 정치적 도덕성을 흡수하여 4·19 혁명 전에 재야정치가로

발언을 하는데,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강성의 발언을 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신익희, 조병우 계열 사람들이 저 사람 강연 못하게 하라고 말할 정도로 장 선생님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승만 정권 밑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과의 관련이 있었지요. 그후, 즉 4·19 이후 윤길중씨와 사회대중당 혁신계로서 민족통일 운동도 하고 복지사회건설 운동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5·16 나고 반혁명 분자로 잡혀갔고, 그러다가 3년 만에 출옥했어요. 그러니까 강성 이미지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장 선생님의 부드러운 이미지는 그 다음부터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측면이 또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정치가로서 도덕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세 측면이 나타납니다. 이 세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유기적인 검토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었는지, 원주 대성학교 창립 당시 무위당 선생이 20대였는데 당시 그분의 교육사상 안에 특별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그분이 받아온 어릴 적의 유교적인 교양과 카톨릭 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몽양과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으로 사회대중당과 몽양의 관계는 무엇인지, 죽산 조봉암 선생과의 관계는 … 또 사상적으로 간디즘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간디즘과 코뮤니즘하고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주라는 데가 현대 우리나라 지역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원주에 교두보를 둔 지역자치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지금까지 중요한 역사적 기여로 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일전선 운동입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종교, 사상의 색채들을 다 위는, 당시 반독재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생명운동 그리고 해월사상이 어떻게 사상가로서의 무위당의 사상 속에 녹아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장 선생님을 해석하는 데, 해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장 선생님이 상당히 정치성이 강했습니다. 물론 도덕정치가요. 그런데 뭐

라고 할까, 암으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짧은 기간, 몇년 안되지만, 그때 이분이 해월을 통해서 거듭난 것 같아요. 만년에 생명사상가로서의 모습이 뚜렷이 새겨진 것이지요. 나에게 열개를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또 한가지가 있어요. 예술가로서 그리고 서예가로서의 장 선생님입니다.

**최종덕** 지역자치 운동과 생명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지하** 지역에 거점을 둔 운동이 바로 동학이지요. 내가 지역자치에 관심을 두면서 터득한 것이 바로, 동학이란 결국 지역의 반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군현제(郡縣制) 국가에서 지역의 반란이라는 것은 과거 봉건제 국가에서의 지역 반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의 지역운동을 새롭게 봄아 한다는 거지요. 지역의 거점 또는 전국적인 일종의 저항운동으로, '소도시 거점론'(작은 지역운동에서 시작하여 넓게 펼쳐간다는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오.

**최종덕** 정치운동, 신협운동, 교육운동, 생명운동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는 일관성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성학교의 설립정신과 난(蘭)을 치는 마음이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관성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다고 보는데, 어떠한지요?

**김지하** 도덕정치가라고 내가 전제를 했지요. 그리고 유학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있는데, 유학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것이 조광조의 '지치주의'라는 것이오. 지치가 곧 도덕정치거든요. 이 지치를 겨냥한 것이 바로 그분의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며 한번 잡는 것도, 누구를 상대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밥 한그릇 먹는 것도 모두 다 지치입니다. 그분의 도덕적인 정치의 목표는, 처음에는 민중운동을 거쳐 후기로 가서 해월사상으로 달지요. 밥 한그릇이 만사지다, 여기서 생명운동과 한살림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월을 통해서 서서히 그분의 태생적인 유학을 넘어서게

됩니다.

**최종덕** 유학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넘어시는 거네요, 결국은.

**김지하** 예를 들면 지치의 관점에서 카톨릭을 넘어선 거지만, 예수를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4대 성인을 다 좋아하니까. 그것은 나도 그렇고 … 장 선생님 제자는 다 그래요. 한살림 운동의 산 증인이신 박재일 선생도 그렇고. 예수의 카톨릭은 좋아하셨으나, 바리사이식의 카톨릭은 아주 싫어하셨지요. 그것이 장 선생님의 지치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모시는 것이지, 로마칼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카톨릭이다, 해월이다, 노자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통합하여 사상을 펼치신 분들은 다 그래요. 유영모 선생이나 합석현 선생 같은 분이 그렇죠. 장 선생님과 합석현 선생님 관계도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지요. 예수도 좋은 건 좋은 거고, 공자도 좋은 점은 좋은 점이고, 외형적인 틀에 얹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최종덕**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카톨릭, 유교, 해월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큰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통합성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시 또 언어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쉽게 말해서 그분의 총체성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하** 장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은 거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유불선 삼교를 다 포함하면서도 접화군생(接化群生), 만물을 다 껴안고 살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라면 '풍류'라고 해도 됩니다. 아마도 그 양반 오래 사셨으면 지금쯤 막걸리 한잔 걸치시고 더덩실 춤추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도덕성을 뿌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분께서 끝에 도달하신 것이 바로 풍류도라고 봅니



다. 지금 사상 문제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상이 복잡하면서도 뭔가 하나를 지향하는데, 바로 '풍류 속에 숨겨진 생명'이라는 말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선생님이 치신 난초에 써어진 글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령,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은 서있는 놈이 없으면 바람도 아니야", 무엇인가 저항을 하고 서있고 부딪치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의 주체가 없으면 바람이라는 사상이나 하늘의 뜻이라는 것도 별 소용이 없다는 말이오.

이것이 바로 성서나 유교나 불교가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해월사상이며, 생명사상인 것이오. 밥 한그릇이 만사지다, 여기에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장 선생님이 동학과 만난 것은 40년대부터 오창세(6·25 직후 사망)라는 불알친구와의 오랜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종덕** 그럼 해월사상을 품고 계신 것은 아주 오래 되었네요.

**김지하** 그 씨앗은 오래 되었지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사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후에 해월사상이 꽂피게 되었어요.

니까 우리나라의 사상가들은, 예를 들어 유불선이나 기독교나 또는 맑스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서로 모순되고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한없이 단순합니다. 접화군생이라는 한마디 말로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티끌까지, 나아가 물 한방울까지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 한알, 한자로 일속자(一粟子),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자호입니다만,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최종덕** 그렇지만 그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는 말 아닌가요?

**김지하** 맞아요. 다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단순하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상의 특징입니다. 한없이 작지만, 클라치면 한없이 큰데 … 이런 사상은 이미 유불선에 다 들어있지만, 기독교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주의 사상에도 들어가 있으며, 간디즘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위당의 사상 역시 아주 복잡하면서도 거꾸로 한없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그것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면 단순해지는 것이고 생활에서 벗어나면 복잡한 이론으로 그냥 남는 것 아니겠소? 무위당에게서는 '생활 속의 사상'인 거죠. 그것이 생명 아니오? 밥 한그릇이 만사지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한살림으로 나타났고, 신협과 생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생활'이지요. 장 선생님이 나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지식인 념새를 되도록 멀리 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영원한 지식인이며 예술가지요.

**최종덕** 제가 궁금한 것은, 도덕정치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과 정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기보다는 마음속에 녹아있는 개념인데 반해서, 정치는 조직을 통해서 구체적인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덕은 명분을 분산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반면, 정치는 명목에 제한된 것인데, 서로 모순되는 개념은 아닌가요?

**김지하** 잘 지적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 선생님은 뭔가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애쓰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그게 어떤

**최종덕** 장 선생님 이야기 속에서 '종사오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도에 따르고 기대어 한다는 것인데, 그 도의 의미가 단순히 노자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하** 그분의 도는 천도(天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그분의 도덕정치의 근본으로서의 도입니다.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모두가 통하는 도이지요. 유교에서도 지치주의라는 것은 도덕정치에 닿아 있고. 사물과 인간 모두를 다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하늘의 얼굴을 다 존중하는, 그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해월이었죠. 아마 해월사상은 장일순 선생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드러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네 같이 덕 없는 중생들은 해월사상을 흡내내는 것도 힘들어요. 또한 그분은 해월의 정신대로 사셨지요. 그분의 해월사상은 해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까지를 모두 흡수하신 결과로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해월사상의 포용력이 커지면서, 무위당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은 안했지만, 마음으로는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포함한 그런 넓은 도를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치주의, 도덕정치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남았어요.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하고 가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종덕** 도덕정치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직을 통한 현실정치겠지요. 또 하나는 앞서 말하셨듯이 봉산동 댁에서 시청 앞까지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 속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루어낸 삶의 정치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도의 실현이기도 한데요. 장 선생님께서 통합의 도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요?

**김지하** 사회, 종교, 교육, 사상의 도가 난초로 나타나지요. 예술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생각하는 도의 경지를 열어 보였다는 말입니다. 난 그렇게 정리하지요. 그분의 사상을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풍류를 말하면서도 이미 접화군생을 다 말한 것이오. 그 안에 다 포함되지요. 그러

의미에서 보면 도덕과 정치 사이에서 깊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술 드시고 집에 가실 때면 항상 봉천내 듅 방길을 걸어서 가십니다. 걷다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앉아서 노래도 흥얼거리고 하시면서, 풍류 속에 세상에 대한 아픔이 숨겨져 있었고 또한 그 아픔을 초월하여 풍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뭔가 잘 안 잡히는 것에 대한 아픔이 계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아픔은 아니지요. 도덕과 정치 사이에서, 혹은 큰 사상의 세계와 현실적인 정치운동 사이에서 오는 괴로움이며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당연한 아픔일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우리보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그냥 봉사하다 간다는 것이지요. 그 점이 더 중요한 거지. 권력과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밑에서 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공(空)이며 무(無)이며 도(道)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쉽지요. 그런데 명성도 얻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원주사람이나 서울사람이나 장 선생님을 좋아 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런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 선생님을 아무리 따라다녔어도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최종덕** 결국 천도사상이나 범종교적인 통합사상, 해월의 생명사상 등을 말로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해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김지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분의 사상은 사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장 선생님의 사상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욕심 없는 생활을 하느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폭의 난초로 남는 것입니다.

### "서있는 놈이 없으면 바람도 아니야"

**최종덕** 그럼 자연스럽게 예술 얘기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 선생님

후기 들어 생명의 강함과 삶의 섬세함이 난(蘭)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김지하 그분의 그림은 문인화입니다. 문인화에서는 그림의 일정한 법칙이라든가 무엇을 그려야 하겠다는 밑그림이나 구도 같은 화의(畫意)가 없습니다. 문인화는 그냥 봇이 가는 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림 속에 자기 내부의 심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인화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런 섬세함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그분의 그림에서도 그런 섬세함이 나타납니다. 장 선생님은 아주 섬세한 분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난릉왕은 내면으로는 매우 강하지만 얼굴만은 미남에 아주 고왔습니다. 그 왕이 전투에 나서야 하는데 맨 얼굴로 전장에 나가면 적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봐 무서운 가면을 쓰고 전장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 선생님도 강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섬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양반처럼 감정이 섬세한 사람이 드물다고 봅니다. 잘 우시고, 남이 불행한 걸 조금도 못 보는 분이셨죠. 가까이 모셨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큰 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그분의 예술 세계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확실히 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라고 딱 잘라 꼬집어낼 수 없는 것, 뭔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버린 듯한 것,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한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섬세한 마음의 표현이었고, 난으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표연란(飄然蘭,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난의 부드러운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하지요. 난이 바람에 흘날리는데, 그게 얼마나 섬세하게 흘날리는지, 어떻게 흔들리다가 다시 또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 자태가 그림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은 보통 섬세한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덕 예술적인 측면에서 섬세함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

다.

김지하 그래서 난 장 선생님 작품 중에 표연란을 제일로 칩니다. 대원군의 난도 표연란인데 너무 뺏뻣하고, 골기가 너무 강해요. 다 사람 기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대원군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철권정치의 마음이 난에 녹아있는 것이지요. 장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철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니지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표연란을 제대로 친 수 있는 것이에요. 바람에 흘날리는 난초는 표연기(飄然氣)하고 골기(骨氣)가 같이 있지요. 흘날리는 잎과 뺏뻣하게 서려는 힘이 같이 있어요. 흘날림과 뺏뻣함의 두 기운이 조화롭게 나와야 난초가 제대로 화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원군과 다르게 골기보다도 표연기가 더 강하지요. 그분의 골기도 상당히 강했지만, 결국은 부드럽고 섬세한 표연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난초를 가만히 바라봐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고 항상 흔들리지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선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 삼국 사군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난초이고, 문인화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난초예요. 난초의 명인 판교와 소남 이후에 우리나라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석파 대원군, 추사, 그리고 한말에 큰 벼슬한 민영익입니다. 그 세 사람 이외엔 동양 삼국에 난초 명인이 없어요. 그런데 동양 삼국 표연란 중에 장 선생님의 표연란이 명품이라는 것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유흥준 교수도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멀링이고 흔들린다고 해서 다 표연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는 난초는 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난초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난초는 많지만, 그러나 달달 떨면서 그런 난초는 한장의 그림이지, 난초는 아닌 게요. 한 먹에 휙갈겨버리는 속에서 난초가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초를 친다'고 하지요. 이렇게 한 손으로 난이 나온다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순식간의 마음 아니면 안되는 것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대(나무)보다 더 어려운 게 난초입니다.

### "하늘과 산이 몸을 숨긴다"

최종덕 한살림운동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김지하 90년도 초까지는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출소 후에 장 선생님 만나고 박재일씨 만나면서, 전면전 형태의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까지도 이런 말에 대해 짧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 이야기가 설득이 잘 안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싸움을 하자면 그냥 싸우는 것이지 다른 뭐가 있나는 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봅니다. 싸우는 데에는 적어도 병법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의 생각이 밖으로 나가자, 빤절자니, 생명교 교주니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운동의 틀이 조금씩 전환되면서 원주에서 한살림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살림이 중산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비난이 있었지만, 장 선생님은 그런 걱정할 것 없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최종덕 그럼 한살림운동도 '당 없는 전선'의 일환으로 봐도 돼나요?

김지하 그렇진 않았어요. 그땐 이미 그것을 넘어섰으니까. 90년대 들어오면서 전선중심, 소도시중심, 교회운동 등을 넘어섰지요. 나 역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고. 그러나 반독재 투쟁이 지속되면서 과거의 전술적 여운이 아픔의 나날로 이어졌지요.

최종덕 그게 저는 장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적 갈등은 박정권 이후의 불행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의 역사는 그런 불행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정치가 아닌 도덕정치의 틀로,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실천의 원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김지하 장 선생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상이고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모두 '철학의 부제'입니다. 혹시 유럽에서 시작하는 철학의 바람이 있어도 여기까지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막혀 있지요. 가령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우리 나름의 진정한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서구의 철학도 좋지만 기껏해야 데르크즈나 가타리 이런 정도지, 동양의 사유를 배경으로 한 우리 나름의 철학이 빙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안 차더라도 조금씩 시작해야지요. 생명사상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철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장 선생님이 주역에서 끌어쓴 글을 표구해서 보냈더라고요. '천산돈(天山豚)'이라, "하늘과 산이 몸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소인이 악하고 득세하면 군자는 몸을 엄하게 가지되, 우습게 보이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소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주에 있을 때도 그러했지요. 원주에 군사령부가 있어서 그런지, 약전군 대령이 와서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장 선생님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사령관이 날마다 장 선생님한테 찾아오고 그랬지요. 나한테는 참모 장급이 찾아오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해요. 겉으로 나서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적을 보되, 적은 우리가 안 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 선생님의 깊은 생각이셨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 도덕정치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정치가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정치가이셨죠.

최종덕 어쨌든 한살림운동이 배부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당시에는 환경운동까지도 우파운동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지하 한살림은 지금까지도 그런 욕을 먹고 있지만, 장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더 본분적인 쪽으로 변했을 겁니다. 장 선생님은 행보가 생각보다 느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빨라요. 그리고 장 선생님의 뜻은 한살림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생명운동으로, 그리고 나아가 유불선사상이나 기독교나 밟스주의까지도 흡수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문명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통일문제까지도

그분의 초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장 선생님의 뒤를 따른다면 생명사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문명 창조의 철학적 지향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팎의 문제 전체의 것을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 생명사상을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

**최종덕** 난 치는 것을 장 선생님께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난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장 선생님과 김 선생님에게 난초의 의미는 단순히 예술의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지하** 그러자면 자연히 장 선생님이 왜 나한테 난초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 선생님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본격적으로 난을 다시 치셨습니다. 그런 당신의 기억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난초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글쎄요, 시간이 있으면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혼자 오래 있다가 나오면 오라는 데 없어도 이곳저곳 가고 싶어지지요. 마음이 그래요. 좌불안석이 됩니다. 자기가 뭐 세상일에 다 간여를 해야 마음이 편한 것인지. 박노해씨가 요즘 비슷하지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마음을 장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는 못쓴다 하며 난초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초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꼭 뱀 같고, 저렇게 그러면 꼭 풍등이 같고, 아니면 부지깽이가 되고,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그리지 말고 한숨에 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시간을 잊고 난을 치다 보면, 뭐 하나 비슷하게 나와요. 잊사귀 비슷하게. 그러면 이파리 몇개에 맛이 붙어, 그 맛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떠돌아다니는 시간 대신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만약 내가 난초 안했더라면 큰일날 뻔했어

요. 그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시절에 나는 또다시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또 가든가, 맞아 죽든가, 아니면 반동분자가 되든가 …

**최종덕** 그렇다면 장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네요.

**김지하** 그런 셈이지요. 난초를 통해서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바람과 풀을 같이 그려야 되거늘, 바람을 그리려면 봇이 날아가버리고, 봇이 안 붙어요. 바람을 치는 건데, 바람을 그리려고 했으니 봇이 따라 붙겠습니까? 난초를 그리려고 하면, 바람이 안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둘을 함께 치려면 닿는 듯 떠있고, 떠있는 듯 닿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굽음과 가늘이 하나로 연결되는 삼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풀과 바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난을 치다 보면 재미가 붙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시 이삼년을 견뎌냅니다.

**최종덕** 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지하** 장 선생님은 나에게는 큰 스승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나쁜 제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잘 찾아 봤지도 못했고, 묘소에도 잘 못 가고 그랬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신 동안에 뜻을 맞춰 가지고 결국 오늘의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신 셈입니다. 그리고 장 선생님이 나 같은 제자를 제자로 보지 않고 놓지도 봐줬단 말입니다. 소중한 분이셨지. 그분과 뜻을 맞춰 일을 해낸 경험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요. 내 아버지, 내 고향·학교 친구들 다 있지만 그분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장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덕** 오늘 주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되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